

아기가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보조 양육자에게

저를 보러와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은 제게 특별해요.

저를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들어 올리기 전에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봐 주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제가 포옹이나 보보를 좋아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등을 구부리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울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분 나뉘하지 마세요. 저는 친해지려면 가끔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먹여 주거나, 목욕을 시켜 줄 때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해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처음 만졌을 때처럼 그렇게 제 몸을 대해 주세요.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일이거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을 좋아해요.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제가 어떤 소리를 내면 그걸 똑같이 따라해도 좋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 말해 주세요. 나무, 꽃, 채소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노래하는 목소리를 좋아하지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내는 소리를 흉내 내서 “구구, 가, 가가”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말해 주세요. 아무튼 나는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말해 달라고 했지만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제가 손이나 발가락, 나뭇잎, 딸랑이, 모빌, 공을 탐색하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처럼 저한테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넘어져서 울면 낚다 달려와서 들어 올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을 느끼게 놔 두세요. 넘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중이니까요. 괜찮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안아 줘도 괜찮은지 먼저 살펴봐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거나 울지 말라 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말아 주세요. 그런 감정을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놀랐느냐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돼요.

제가 울면 그건 무엇인가에 대해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이 들기 힘들어서 울고 (가끔은 위안을 주는 손길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자극이 많을 때도 울어요.(위로해 주고 자극을 없애면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싶을 때도 울어요.(이 때는 다른 공간에서 또는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배가 아파도 울지요.(그러면 다리를 들고 있어요.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 238쪽에 나온 배앓이와 반사 부분을 참고해 메모해 두세요.) 기저귀가 젖었거나 응가를 해도 울어요.(이때 몸의 느낌이 참 이상해요.) 몸을 긁는 옷(술기가 없는 부드러운 옷이 좋아요. 옷에 붙어있는 상표 같은 것도 괴로울 수 있어요.)을 입고 있거나 누워 있는 담요에 주름(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울퉁불퉁한 통나무에 누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이 있어도 울어요. 집 안에 움직임이 많아도 울지요.(형이나 누나가 좋긴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곳이 어디 없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너무 움직임이 없어도 울어요.(나무 아래 누워서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하지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울고(위장이 그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딱히 눈에 띄는 이유없이 그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요.

가능하다면 도와주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도와주면 저 스스로 이 멋진 발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안 도와주면 저는 주변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적절한 균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탐험을 할 수 있게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아니면 밖으로 데려가 주세요. 자연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제게 나눠 주세요. 노래를 불러 주고, 악기를 연주하고, 정원에 나가 구근 심는 것을 보여 주세요. 뜨개질이나 나무 깎는 것을 보여 주어도 좋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나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거나 옛날이야기를 해 주어도 좋아요.

물리적인 선물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짝거리지 않고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지 않는 간단한 놀이감이 더 좋아요. 저는 생각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와 관련해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 6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난감이나 아기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영상이나 화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잠자기에 빛이 너무 세거든요. 그보다는 실제로 만지고 입에 넣어 볼 수 있는 물건이 좋아요. 입 이야기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지금 입을 이용해 세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넣게 해 주세요.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빼 주고요.

저를 보고 미소 지어 주세요. 같이 웃고, 제 눈을 깊이 바라봐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